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사순절 순례는 잘 하고 계신지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신앙실천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배 중에 1년 동안 참빛찬양대로 봉사할 이들을 임명합니다.

1시에 교사실에서 교회학교 교육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봄철 심방은 새 교우 가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장 전도사님과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들은 오후 1시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세례 입학 교자 교육에 참석하십시오.

제7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초록장터가 매월 둘째 주 점심시간에 지하유치부실에서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헌금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헌금에도 열심을 내주십시오.

한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차를 쉬게 하십시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이웃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입니다.

- 대 장 : 유명남 지 휘: 안홍숙 반 주: 김수진 총 무: 박경선
- 소프라노 : 고숙이 정경례 백혜숙 조순덕 문복순 광권희 진정숙 김미순
- 정복순 박옥식 안정숙 문영혜
- 메 조 : 유정순 박혜경 김희우
- 엘 토 : 이봉옥 구성실 송임희 박영희 이재문 문금석 임창선 이소순
- 김영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 인생 거울

-- 매들린 브리지스

세상에는 변치 않는 마음과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들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랑을 주면 너의 삶으로 사랑이 모이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것이다.  
 마음의 씨앗들을 세상에 뿌리는 일이  
 지금은 헛되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왕이든 결인이든 삶은 다만 하나의 거울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비춰 줄 뿐.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  
 심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들이 어리석고 부  
 족해도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삶이 제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되겠습니다. 그 기쁜 비밀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이웃  
 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이형숙 집사	기도 / 박효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연태호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조문규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철수 조문규 최철수 하정석 박애순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 사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탓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그야, 있다면 저한테 있겠지요.”

“옳은 말이지만, 정직한 대답은 아니구나.”

“.....”

“탓이 너한테 있다면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밀 빠진 독 같아서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군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탓’이 너한테 있다는 말이 옳다고 한 것이다.”

“제가 무엇을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한 것 없다.”

“그런데 왜 이토록 힘들지요?”

“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것이다.”

“예?”

“사랑은 누가 누구에게 주거나 누가 누구한테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받으며 살아 있게 하는 힘이다.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주고 또 받으려 하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땅을 어깨에 메고 다니려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어늘, 어찌 힘들지 않겠느냐? 하면 할수록 힘들 것이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사랑을 깨칠 수 있겠느냐? 조금하게 굴지 말아라. 지금 잘하고 있다.”

.....

“봄이 되면 땅이 새싹을 땅거죽 위로 밀어올리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땅이 없으면 어찌 새싹이 돋겠습니까?”

“사랑이 그와 같다. 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것이 사랑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는 하겠습시다만,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지 않았느냐? 하늘이 모든 것을 덮는다는 말은 그 어느 것도 바꿔놓거나 짓혀두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랑은 하늘과 같다. 땅이 모든 것을 신는다는 말은 그 어느 것도 싫어하거나 밀쳐버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랑은 땅과 같다. 해와 달이 모든 것을 비춘다는 말은 그 어느 것도 등지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랑은 일월과 같다.”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를 덮어주고 실어주고 감싸주어야 합니까?”

“전에 내가 들려준 ‘집 떠난 아들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둘째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그의 가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또한 그의 귀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선생님의 집 떠난 아들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따라가지 않았 습니다.”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늘 아들 곁에 있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억지로 아들을 집에 붙잡아두거나 아들을 따라서 도시로 갔다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자기 곁에 두거나 아들 곁에 있기를 고집했다면, 그것은 아들의 ‘출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따라서 아들은 끝내 귀향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

“지금 누가 네 눈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기억해 두거라. 그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 품 아닌 데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걷는 길은 짧게 보면 출가행出家行 또는 귀가행歸家行으로 두 길이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출가는 귀가의 씨앗이요 귀가는 출가의 열매일 뿐이고 따라서 모든 길이 결국 귀로歸路인 것이다.”

“.....”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없이,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그와 함께 있어라. 거둬 말한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곁에 없는 듯 있는 것이다. 하늘이 땅을, 땅이 초목을, 일월이 만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이아무개 지음, <<지금도 쓸쓸하냐>> 중에서